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학생선수

신민철* · 강유원**

Student Athletes From the Perspective of Sartre's Existentialism

Shin, Min-Chul · Kang, Yu-Won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학생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미해결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 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그들이 지녀야 할 모습과 태도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르트르가 제시한 실존주의의 두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해 나아가는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학생선수들이 자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해 나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존은 주체성이다.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생선수들도 지도자 아래에서 살아왔던 수동적 삶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창조적 존재이자 기획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불안을 감당하는 진실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 주제어 : 실존주의, 실존, 학생선수, 주체성, 능동적 주체, 책임, 불안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appearance and attitude focusing on Jean-Paul Sartre's existentialism in order to solve the numerous unresolved challenges experienced by Korean student athle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independent human beings who embody their ess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beings realize that they are the masters choosing a free life. Secondly, as students who create their own l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break away from the passive life we have lived under a coach. Accordingly, we should become creative beings who create their own essence as free and independent human beings, a subject of planning, and a subject of responsibility. Through this, student athletes must realize that they are their owners, find their subjectivity, and make free choices, and become sincere human beings who bear the responsibilities and anxieties of their choices.

※ Key words : existentialism, existence, student athletes, subjectivity, active subject, responsibility, anxiety

* 제1저자,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 / Sejong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 교신저자,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ywkang@sejong.ac.kr / Sejong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

I. 서론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1960년대부터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이옥훈·주동진·김동규, 2001). 이후 프로야구의 창단과 본격적인 구기 종목의 프로화를 기점으로 스포츠를 나라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삼으며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스포츠의 양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송형석, 2006). 이로 인해 한국의 스포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매우 급속한 성장할 수 있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올림픽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하여 스포츠 신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지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양적 증가에만 집중했던 탓일까, 스포츠 속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현장이나 스포츠의 양적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오직 경기력 향상만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승리지상주의만을 강조하며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김동현, 2012). 또한, 스포츠 현장 속 기록 단축을 위한 과학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지상주의를 초래하며 물질만능사상과 승리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이다(김동규, 2018). 그 결과 승리만을 중요시하는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며 학생선수들은 실력 향상이라는 목적만으로 폭력, 성폭력, 학습권 박탈, 정체성 혼란, 인권유린 등 수많은 미해결의 난제 속에서 고통받으며 고립되었다(안재찬·김지혁, 2020).

이에 국가에서는 과거부터 학생선수의 부정적 문화와 더불어 더 나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교육과학기술부, 2010),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업무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 최저학력제(법제처,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4대약 근절(2014), 합숙소 교육적 운영방안 등 학생선수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왔다. 또한, 체육학계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연구(김진환·박정준·최정규, 2020; 김화복, 2020; 김현수·박성주, 2020; 김현우·전현수, 2020; 명왕성·최영래, 2019; 박현권·임수원, 2015; 윤기준·전세명, 2020; 정현우, 2021), 학생선수의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손용기·강유원·강덕모, 2018; 임새미, 2015; 이승만, 2019), 운동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동현, 2011; 김홍석·류태호·최진숙, 2009, 이혁기, 2011), 이외에도 교육적 담론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알아본 연구(홍덕기·류태호, 2007), 최저학력제에 관한 연구(김진필, 2018; 박현권·임수원, 2015; 이양구·유정애, 2012) 등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들을 제시하며, 학생선수를 위한 올바른 여건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많은 제도적, 정책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이상하리만큼 노력에 비해 고요하기만 했다. 여전히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끊이지 않는 폭력 및 폭행, 학습권 침해, 인권유린과 같은 수많은 문제로 매년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운동선수(김정석, 2021), 최저학력제도에 의한 성적 미달로 경기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 성적조작을 한 교장과 지도자(노유림, 2021),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속 이면(경기일보, 2019), 편법 합숙 논란(김성호, 2021) 등 수많은 부정적 문제들 속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고립되어있다.

2000년대 이후 선수의 인권과 문제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체육계에서는 학생선수를 위한 노력을 하며 문제점들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학생선수들은 출발점에 그대로 멈춰있는 듯하다(안재찬·김지혁, 2020). 어쩌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피력해왔던 학생선수들의 변화와 개선이 한국 스포츠 특유의 폐쇄적 문화가 엄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 양상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학생선수라 함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없는’, ‘운동만 하는’, ‘친해지기 어려운’과 같은 어두운 존재로 늘 각인되어 왔다(이혁기·신석민·김인형·전원재·장승현, 2021). 또한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바깥 세계와 완전히 격리돼야 하는 존재로 늘 인식되어왔다(박노자, 2006). 그저 피동적 존재로 언제나 지도자가 지시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해왔던 것이다. 지도자가 시키는 것이 곧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운동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 왔다(이학준, 2009). 이에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선택은 단 한 번도 요구되지 못하며, 늘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 실 주체인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잇은 채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학생선수들은 운동에만 집중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지식과 능력들을 함양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되고, 탈사회화 이후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서연희, 2012; 장성호·김인형, 2016). 이는 학생선수 시절 지도자 아래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피동적 존재로 살아온 안타까운 결과이자 현실이라 할 수 있다.

‘2019년도 은퇴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선수의 실업률이 약 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영학, 2020).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중 일반인 실업자 비율이 약 4%인 점을 감안 한다면 약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는 많은 선수가 탈사회화 이후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들이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 아래에서 늘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온 결과로서 은퇴 후 그들의 삶 속에서 주체적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성장함에 있어, 억압된 생활, 주체성 없는 삶, 그에 따른 진로 선택권 및 학습권 박탈로 인해 재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갖추는 것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힘든 훈련과 학업 소홀로 인해 운동선수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학생선수라면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에 강유원(2002)은 한국의 체육교육이 실존주의적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와 창조 그리고 그들의 주체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후 체육학계에서는 학생선수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김홍석·류태호·최진숙, 2009; 명왕성·정경환, 2019; 한승백, 2014, 홍덕기·류태호, 2007)들이 제시되면서 학생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양상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20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 주체성은 이전보다 더 손실된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 폴 사르트르(J. P. Sartre)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학생선수들이 지녀야 할 실존과 그 주체를 제시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영향력보다 철학적 재고가 문제 해결에 있어 다소 미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에게 본연의 사고와 주체적 변화 없이 제도적 변화만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조치일 수 있으며, 학생선수의 주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손용기, 강유원, 강덕모(2018)는 과거 학생선수들을 위한 선행연구와 제도들은 학생선수들의 주체적 변화 없이 제도적인 변화만을 이끌어낸 것이라 제시하며, 그들의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적 재조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르트르가 제시한 실존주의의 철학적 제시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지녀야 할 주체성을 재고함으로써 더 나은 학생선수의 문화와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II.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근대시대의 철학사상을 이끌어 왔던 헤겔철학에 대한 반동의 철학으로 탄생하였다(박영식, 2008). 당시 전 유럽의 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겔철학은 모든 사건에 숨은 본질을 절대정신이라 정의하였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절대정신'의 이성적 구현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 중심의 사상보다는 거대한 체계를 통해 모든 것들을 그 체계 안에 포괄하고 이해하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 사상인 것이다(이윤일, 2002). 하지만 근대유럽 문명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시작으로 시대적 상황들과 통념들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면서, 인간들은 헤겔철학과 같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사상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적 체험과 산업화되어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주체성까지 흐리는 역현상을 초래하였다(김원옥 역, 1995). 이에 인간들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헤겔철학은 지양하게 되며, 현실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철학사상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철학 실존주의의 태동이 되었다.

실존주의는 과거 헤겔철학과는 달리 인간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철학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철학사상이다. 이는 인간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인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 사상이다(양혜림, 2012). 과거 헤겔철학이 통념했었던 절대정신 아래의 인간이 아닌,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알아가고 실존에 대해 탐구해가는 철학사상이 바로 실존주의이다. 그렇다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이란 무엇인가?

실존의 어원은 그리스어 'existere' 에서 연유한다. 'ex'는 바깥을 의미하며 'istere'는 존재를 의미한다. 즉 존재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본질과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바깥에 드러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정의된다. 본질이란 물건이 일정한 물건이기 위해 그 물건에만 내재하는 고유한 존재를 뜻한다(두산백과, 2020). 예로 들면 책장의 종류는 모양 크기 색깔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본질을 책을 수납하는 것으로 모두 같다. 시계도 마찬가지다. 손목시계, 벽걸이 시계와 전자시계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계가 존재하지만 모든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본질인 것이다. 하지만 실존은 본질과는 달리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규정과 목적 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존인 것이다(권혁정·빙원철, 2020). 실존주의의 창시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는 실존은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오직 인간의 현실 존재 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에 있어 실존은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며 인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철학적 정의인 것이다.

실존철학은 크게 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즉, 유신론적 실존철학과 무신론적 실존철학으로 분류된다. 이 둘은 인간의 주체성과 본래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같이하면서도,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을 통한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려 하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양심과 이성에 책임을 두며 본래적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박영식, 2008).

실존주의의 대표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 p. Sartre)는 스스로를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신이 있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인간은 그 본질에 의해 한정된 본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박영식, 2008). 즉 인간은 신이 정해준 본질에 의해 제한된 존재가 되어 어떠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본질에 의해 제한된 존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즉,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이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주요 관념을 두 명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둘째는 '실존은 주체성'이다.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J. P. Sartre, 1946)

위 인용문은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최초로 제기했던 문장으로서, 그의 실존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의 본질은 앞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사물을 그것 되게 하는 성질을 뜻하는 말로,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본질이다.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자들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고 본질은 존재가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다(최훈, 2020). 즉, 본질이 실존보다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박영식, 2008). 그렇다면 사르트르에게 있어 본질을 앞서서 실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르트르에게 있어 실존의 개념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된다. 사물이나 도구는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본질은 실재에 앞서게 된다. 다시 말해 도구나 사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존재 자체에 아무런 제한과 목적이 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존이 본질에 앞서게 된다. 모든 인간은 그냥 실존하는 존재인 것이다(권혁정·빙원철, 2020). 그 누구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세상에 그냥 내던져져 있는 존재이다(안광복, 2017).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의사, 철학자, 운동선수와 선생 등 직업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 아닌 그저 태어나진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사르트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을 부여받지 않은 백지상태로 존재하다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선택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라 제시한다.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 (J. P. Sartre, 1946)

즉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훌륭해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신성립, 2019).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과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 스스로에게 자신의 본질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강유원, 2002). 즉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 가는 존재이기에 자기 의지대로 자신을 바꿔가며 살 수 있다. 예로 들어 책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물을 마시겠다고 결심하면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둘 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조차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였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택 모두가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실존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발전하고 창조해 나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해 가는 과정을 '기투'라 제시한다(철학아카데미, 2013). 하지만 이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이윤일, 2002).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 나만의 가치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이다.

2. 실존은 주체성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아귀 안에 있다. (J. P. Sartre, 1946)

위 인용문은 ‘실존은 주체성’이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 즉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함축하는 문장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임을 의미한다(박영식, 2008). 신이 준 본질에 의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본질을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른 스스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에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함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라고 제시하였다(방곤 역, 1999). 이때 사르트르가 제시한 책임의 범위는 개인이 택한 일이라도 그 책임은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이라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모든 인류와 관계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였다(홍예진, 2020).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와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일에 다른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인류에 대한 책임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선택에 따라 변동되는 사회·경제·정책적 흐름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윤일(2002)은 사르트르가 제시한 책임에 대해 결혼을 빗대어 비유하였는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내가 선택한 욕구에 의한 결혼 일지라도 그 행위가 인류 전체를 일부일체제로 구속하게 되는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은 개인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가 아닌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박영식, 2008). 이에 사르트르는 인간 스스로 선택한 행위가 자신뿐만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에 따른 책임에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김선영, 2015). 사르트르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진실한 특징이자 거울이며 뿌리와도 같다고 제시한다(신성림, 2019). 즉 선택과 책임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은 인간만이 향유 할 수 있는 실존주의의 미학인 것이다.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물건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르트르가 말하고 싶었던 실존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과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실존이자, 그가 말하고 싶었던 실존주의인 것이다.

III. 사르트르 실존주의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학생선수

1. 선수가 아닌 나: 실존

실존주의에서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특수한 범위 안에서 독특한 영역을 매개로 하는 ‘체험’을 의미한다(권혁정, 2021). 이에 실존주의는 인간이 실존해 있음을 탐구한 철학사상으로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라 주장하며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 정의하였다(Sartre, 1946). 인간이 아닌 모든 도구에는 각자 나름의 본질이 있다. 칼은 자르기 위함이고 못은 박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다. 다시 말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저 이유 없이 세상에 내던져져 목적과 본질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창조적 존재이다(안광복, 2007). 즉 자유

로운 존재이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이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인 실존적 존재인 것이다(박영식, 2008). 이를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제시한다(Sartre, 1946).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심지어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조차 일종의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것이다(이윤일, 2002). 이에 인간은 현재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계획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의 동기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양해림, 2012).

그러나 한국의 학생선수들은 그렇지 못하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한국 학생선수를 바라본다면 학생선수의 본질은 실존보다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서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게 되는 도구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스포츠의 성장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스포츠의 발전을 이뤄왔다(신민철·손용기·강유원, 2021). 이에 모든 정책과 움직임은 엘리트체육과 체육특기생제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결국 학업성적이 무시된 채 오직 경기실적과 운동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반교육적 구조를 야기하게 되었다(임용석·류태호, 2014).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학업과는 단절된 공간의 제약 속에서 교육 공백 현상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한계를 느끼고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홍덕기·류태호, 2007), 운동 한 가지만 잘하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도자가 시키는 것 만이 미덕이고 지도자만이 자신을 성공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에게 지도자는 무조건적 절대복종의 대상이며 절대적인 위계 및 권력관계이다(허현미·황정임·선보영, 2008). 즉 그들에게 지도자는 신적 존재인 셈이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지도자가 지시하는 것만이 곧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며 그 성공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기에(이학준, 2009), 자신의 실존을 잊어버린 채 오직 운동에만 몰두하게 되는 비이상적인 한국의 스포츠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학생선수는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로운 선택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닌, 수동적 결단과 지시에 따라 살아가며 본질을 부여받고 탄생한 사물과 같은 ‘객체’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본질을 오직 운동선수라고 착각하여 운동 이외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그들은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 행위에 익숙해지며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선수로 성장함에 있어 억압된 생활, 주체성 없는 삶, 그에 따른 학습권 박탈로 인해 재사회화 과정에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갖추는 것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선수들이 은퇴 이후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들을 소양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연희, 2012). 이는 늘 수동적으로 운동만 해왔기에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받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선수가 하루빨리 자신의 실존 즉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재사회화를 위함이 아닌 이상적인 학생선수로서 총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학생선수는 그저 자유로운 인간일 뿐이다. 그들에게 학생과 선수라는 본질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학업으로서의 다시 학생이 되길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학생선수를 그만두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다른 분야를 택하여 나아가는 것도 자유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정답은 없다. 오로지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여 선택한 것이 정답인 것이다. 이에 사르트

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미리 정의될 수도 없고 오로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 제시한다(양해림, 2012). 때문에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진정 운동을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 누군가의 욕망과 욕심으로 운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더 잘할 수 있는 것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가 나의 인생을 평생 인도해줄 존재도 아니며 책임져줄 존재가 아님을 필히 깨달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사르트르에게 있어 학생선수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깨달아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발전하고 창조해 나아가는 존재 즉 '기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자신만의 본질을 구현해 나아가는 학생선수가 아닌 주체적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스포츠 특유의 위계적 문화와 폐쇄적 정서로 인해 스스로의 선택에 있어 두려움과 어려움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나의 것이며 내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 나의 삶의 주체는 나: 주체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생선수들은 스스로의 주체를 잊어버린 채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피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실존주의에 의하면 그들은 사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들이 본질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처럼 오직 운동에만 열중하며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것과 같이 타인의 기대와 선택에 의해 행동하며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권혁정, 2021).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에 의해 제한되는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 나아가는 능동적 주체이다(이운일, 2002).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인지하고 자신의 본질을 창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유원, 2002). 또한 인간은 결코 미리 정의될 수 없는 존재이며 오로지 자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다(양해림, 2012). 즉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르트르에게 있어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찾아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 나아가 줄 아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르트르는 주체성에 있어 인간을 '기획의 주체'라고 제시한다(박영식, 2008).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줄 아는 기획의 주체인 것이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있어 은퇴라는 것은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임세미, 2015), 실질적으로 한국의 많은 선수가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지식과 능력들을 갖추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재사회화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장성호·김인형, 2016). 이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 채 지도자의 그림자 안에 살아온 선수들의 암울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는 기획의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획의 주체에 있어 은퇴 후의 자신의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이 아닌, 당장 지금의 계획도 주체적으로 기획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훈련에 임함에 있어 어떤 부분을 스스로 보강해야 하는지, 학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르트르는 주체성에 있어 인간을 스스로 기획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책임의 주체'라 제시한다(김동규·김상현, 2003).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책임은 인간의 자유와 동의어로 여겨지는 개념이다(홍예진, 2020). 즉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르트르가 제시한 책임의 범위는 개인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가 아닌,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책임이다(박영식, 2008). 인간은 자신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나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서 책임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에 있어 자신과 공공의 선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책임에 따른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존재 의식으로서의 자유의 존재 형태라 제시하며(Sartre, 1946),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결과에서 파생된 감정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으로 진실된 특징이자 거울이며 뿌리와도 같다고 제시하였다(신성립, 2019). 즉 인간이 자유를 피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불안과 고독과 절망이라는 것은 불가결한 감정이라는 것이다(이윤일, 2002).

이는 사르트르에게 있어 학생선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과 계획한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또한, 공동체 문화가 강한 한국의 운동부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르트르가 제시한 책임은 한국 학생선수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게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선수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도자와 훈련 시간을 협조해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공동체 인원들은 훈련 불참에 대한 불공평성을 느껴 팀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공동체 인원들에게는 자기 계발에 대한 도전의식과 팀원들에게 학습문화를 재고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운동부의 문화에 길들여진 학생선수라면 주체성을 확립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그 누구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간은 변화를 통해 성장하며 그 과정 속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책임과 그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변화 속 불안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성장해왔다.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주체적 선택과 책임에 있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든 그 자유에 따른 불안은 늘 수반되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가며 나아가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학생선수에게도 마찬가지다.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한국의 운동부 문화 아래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두렵고 불안하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불안은 언제나 수반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나아가도 되는 존재이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곧 정답이고 그 선택이 곧 자신의 본질인 것이다. 때문에, 학생선수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기획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그의 결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성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행동하고 선택하여 살아온 수동적 삶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존재이자 기획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생선수들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고 책임지며 그 과정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인간임과 동시에 자유롭게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기투의 존재이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선택하고 제한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유롭게 기획하며 책임

감을 가지고 만들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피동적 삶에서 살아가는 학생선수가 아닌 자신의 주체성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점이다. 학생선수의 주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여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학생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양상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올바른 주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진다면, 한국의 스포츠 또한 학생선수와 함께 진일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틀에 갇힌 객관식과 같은 선택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주체적인 주관식과 같은 서술형 인간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스포츠의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 이후 스포츠를 나라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삼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는 한국의 스포츠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한국의 스포츠 문화는 우수한 성적을 위하여 경기력 향상만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실적·성적만을 강조하며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학생선수들은 오로지 실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폭력, 성폭력, 학습권 박탈, 정체성 혼란 인권유린 등 수많은 미해결의 난제를 목인하며 양산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학생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장 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지녀야 할 모습과 태도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 양상에 대해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주체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르트르가 제시한 실존주의의 두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깨달아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발전하고 창조해 나아가는 존재 즉, '기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만의 본질을 구현해 나아가는 학생선수 아닌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존은 주체성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에 의해 제한되는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 나아가는 능동적 주체이다. 즉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생선수들도 과거 지도자 아래에서 살아왔던 수동적 삶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는 창조적인 존재이자 기획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따라 인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주체적 선택에 있어 느끼는 책임과 불안은 언제나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불안을 감당해 나아가는 진실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올바른 학생선수의 주체성 존립과 자유로움을 통해,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원(2002). 실존주의와 체육교육. **한국체육과학회지**, 11(2), 23-34.
- 교육과학기술부(2011).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육성을 위한 2011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권혁정(2021). 태권도인의 실존적 삶에 대한 앙가주망(engagement)-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엘니스학회지**, 16(1), 119-126.
- 권혁정, 빙원철(2020). 현 시대적 배경 (COVID-19) 에서 태권도장 생존을 위한 지도철학 논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8(4), 107-120.
- 김동규(2018). **체육·스포츠철학의 제 문제**. 경북: 영남대학교출판부.
- 김동규, 김상현(2003). 실존주의 체육사상: 체육교육 제 모습 찾기. **한국체육학회지**, 42(6), 53-64.
- 김동현(2011). 일반학생에서 학생선수로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1), 71-90.
- 김동현(2012). 나에게 운동은 무엇이었나?: 운동선수로서의 삶과 그 의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과학연구**, 23(2), 343-359.
- 김선영(2015). 사르트르 철학에서 도덕 주체에 대한 탐구. **헤겔연구**, 38, 219-240.
- 김원욱 역(1995) / Foulquie, Paul. **실존주의**. 서울: 탐구당.
- 김진필(2018).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운영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175-201.
- 김진환, 박정준, 최정규(2020). 학습권보장제에 대한 고등학교 탁구부 남자 학생선수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1431-1456.
- 김현수, 박성주(2020).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5), 13-30.
- 김현우, 전현수(2020). 대학운동선수의 수업참여실태 조사 및 학습권보장에 대한 인식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155-171.
-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2009). 학생 선수에서 운동부 학생 되기: 고등학교 검도선수의 운동과 학업병행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45-157.
- 김화복(2020).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보장과 학생선수 e-스쿨 이용실태조사. **한국스포츠학회지**, 18(4), 667-675.
- 명왕성, 정경환(2019). 남성 축구선수들이 경험한 합숙훈련의 소외, 기능 그리고 사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2), 110-127.
- 명왕성, 최영래(2019).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 대학스포츠 C0규정의 사례. **체육과학연구**, 30(2), 345-359.
- 문화체육관광부(2014). **스포츠 4대 약 신고센터 개설, 지속가능개혁 추진**.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식(2008). **서양철학사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 박현권, 임수원(2015).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정착화 과정: B 초등학교 축구부의 사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2), 85-100.
- 방곤 역(1999) / Sartre, J. P.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문예출판사.
- 법제처(2013).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 11690호.

- 서연희(2012). 운동선수의 은퇴기대, 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수준 및 재사회화 간의 구조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4), 393-406.
- 손용기, 강유원, 강덕모(2018). 학생선수의 긍정적 재사회화 인식을 위한 해체주의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7(3), 1-15.
- 송형석(2006). **체육·스포츠 이야기**.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신민철, 손용기, 강유원(2021). 스포츠인과 스포츠에 대한 질료형상론적 접근: 왜 스포츠인은 스포츠일탈을 금하여야 하는가. **한국체육과학회지**, 30(2), 1-11.
- 신성립(2019).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안광복(2007).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안광복(2017).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서울: 어크로스.
- 안재찬, 김지혁(2020).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어제와 오늘.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8(4), 57-65.
- 양해림(2012). **대학생을 위한 서양철학사**. 서울: 집문당.
- 윤기준, 전세명(2020).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탐색 사례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2), 127-145.
- 이승민(2019). 배구선수 출신 체육교사의 스포츠사회화 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3), 72-88.
- 이양구, 유정애(2012).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서 본 최저학력제 시행 및 성과 평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81-191.
- 이옥훈, 주동진, 김동규(2001). 제 3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성향 비교.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9(2), 105-124.
- 이운일(2002). **현대의 철학자들**. 서울: 선학사.
- 이학준(200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와 대안. **한국체육학회지**, 48(5), 35-44.
- 이혁기(2011).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경험과정: 자아의 재정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1), 1-24.
- 이혁기, 신석민, 김인형, 전원재, 장승현(2021).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가치체계 분석: 수단-목적 사슬이론 관점에서. **한국체육학회지**, 60(3), 341-352.
- 임새미(2015). 인문, 사회과학편: 여성 국가대표 테니스선수가 경험하는 은퇴 후 재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한국체육학회지**, 54(3), 75-87.
- 임용석, 류태호(2014).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3), 113-140.
- 장성호, 김인형(2016). 배드민턴 선수들의 은퇴상황과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응 경험. **한국체육학회지**, 55(5), 29-41.
- 정현우(2021).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의 새로운 관점: 교육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33-49.
- 철학아카데미(2013). **처음 읽는 독일 현대철학**. 경기: 동녘.
- 최훈(2020).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철학 365**. 서울: 비에이블.
- 한승백(2014). 공부하는 학생선수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2), 79-91.
- 허현미, 황정임, 선보영(2008).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401-421.
-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4.
- 홍예진(2020). 사르트르의 『알토나의 유폐자들(Les Séquestrés d'Altona)』에 나타난 자유와 책임의 문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Sartre, J. P. (1946).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Paris: Nagel.

경기일보(2019,10.22.). 5년 동안 200개 학교 운동부 해체했다면 / 학습권 보장 아닌 선택권 박탈일 수 있다.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266>

김성호(2021,02.25.). 상시합숙 금지에 운동부 '편법 합숙' 논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50927083950>

김정석(2021,06.27.). “죄 밝혀줘” 후 1년…故최속현 폭행 증언 동료들 소송 당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91842>

노유립(2021,06.23.). 운동부 학생 대회 '최저학력' 맞추려 성적 조작…벌금형.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80811&code=61121311&cp=nv>

박노자(2006,06.29.). 검투사와 국민적 신체 사이. 한겨레21.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109000/2006/06/021109000200606290616078.html>

오영학(2020,10.12.).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 23세, 10명 중 4명은 무직.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60>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3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